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6월 뉴욕 제조 활동 위축...향후 비즈니스 여건 전망은 좋아
- WSJ: 미 신규 졸업생들, '고용 위기' 직면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국채 가격 하락...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

[미국 관세]

- WSJ: 주요 국가들, 트럼프에 관세 관련 G-7으로 향한다

[글로벌 경제]

- WSJ: 중국 제조 둔화 가운데 소비자들 지출 늘려

[오일]

- Bloomberg: 오일 가격 하락...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여파 크지 않아

[철강]

- CNNBusiness: US Steel과 일본제철, "트럼프가 파트너십 인정했다" 밝혀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NYT: 왓츠앱, 앱 내 광고 도입
- CNNBusiness: 삼성, "고령층 건강 관리"...애플에 도전
- CNBC: 스타벅스, 기업 변모 새로운 전략...직원 신뢰 회복에 집중
- Bloomberg: 아멕스, 플래티넘 신용카드에 '역대 최대 투자' 한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New York Factory Activity Contracts While Outlook Improves 6월 뉴욕 제조 활동 위축...향후 비즈니스 여건 전망은 좋아

- 6월 뉴욕주 제조 활동은 예상보다 위축됐다. 주문과 출하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다. 다행히 향후 비즈니스 전망은 밝았다.
- 오늘 월요일 뉴욕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거의 7포인트 하락한 -16을 기록했고, 4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. 당초 예상치는 -6.
- 다행히 향후 6개월간 비즈니스 여건 전망은 23포인트 이상 상승해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의 5년간에는 최고치를 보였다. 제조업체들의 가격 기대도 줄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Young Graduates Are Facing an Employment Crisis 미 신규 졸업생들, '고용 위기' 직면

- 미 노동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다. 그러나 최근 미 대학 졸업생들은 구직 위기를 맞고 있다. 고령층 근로자들에 비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.
- 뉴욕 연준은 “최근 대학 졸업생의 노동 시장 환경은 1분기의 경우 눈에 띄게 나빠졌다”고 말했다.
- 채용 문화로 젊은 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초급직 고용은 지난 2019년 4월 이래 17% 감소했다.
- 이들 최근 졸업생들은 경쟁과 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체들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Treasuries Fall as Israel-Iran Tensions Fuel Inflation Concern 미 국채 가격 하락...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

- 미 국채 가격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오일 가격이 일시 상승세를 보였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.
-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진 4.43%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투자자들은 베팅을 줄이고 있다.
- 투자자들은 지난 금요일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49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오늘 월요일 46 베이시스 포인트 줄였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관세]

WSJ: Nations Head to G-7 Hoping to Reach Trade Deals With Trump 주요 국가들, 트럼프와 관세 관련 G-7으로 향한다

- 주요 국가들은 G-7 정상 회담을 통해 트럼프와 무역 협상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다. 트럼프와 직접 만나 양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완화시킬 목적이다.
- 트럼프 협상팀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 자동차, 철강, 알루미늄 이슈에 대해 주요 파트너 국가 간에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.
-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논의와 영국의 철강 관세 면제 모델을 따라 미국으로부터 관세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.

WSJ 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Chinese Spenders Open Wallets as Factories Slow

중국 제조 둔화 가운데 소비자들 지출 늘려

-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계는 5월에 관세 압력에 직면해 있다.
- 그런데 현재 소매업체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 정책으로 중고품을 팔고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세금 제를 해주는 트레이드 인(Trade-in) 시책을 장려하고 있다. 5월 연간 소매 매출은 4월의 연간 성장률 5.1% 보다 높은 6.4%를 보였다.
- 반면, 부동산 약세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
WSJ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Turns Lower With Iran-Israel Attacks Sparing Flows So Far'

오일 가격 하락...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여파 크지 않아

- 오일 가격이 양국의 갈등이 발생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트레이더들은 양국 갈등 국면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갈등이 현재까지 관련 수출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.
- 브렌트유는 개장 직후 상승했으나 현재 1.3%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현재 오일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 때문이다.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유는 급등할 수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철강]

CNNBusiness: US Steel and Nippon Steel say Trump has approved their partnership

US Steel과 일본제철, “트럼프가 파트너십 인정했다” 밝혀

- 일본과 미국 양사는 양사의 파트너십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.
- 이들 파트너십 협정에 따르면 US Steel의 주요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. 이를 통해 외국 기업의 관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. 양사의 파트너십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.
- 또한 일본제철이 US Steel에 약 1백10억 달러를 오는 2028년까지 투자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신규 투자 공장을 2028년 이후 완성하는 등 미국의 제조 활동을 늘리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.

CNNBusiness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NYT: WhatsApp Introduces Ads in Its App 왓츠앱, 앱 내 광고 도입

- 수년간 광고나 소셜 미디어의 다른 기능들에 방해 없이 자유롭게 친구나 가족과 채팅할 수 있던 왓츠앱이 이제 앱 내에 광고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.
- 이는 왓츠앱의 초기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움직임으로,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
- 이와 관련 왓츠앱 대표 Will Cathcart는 성명에서 “왓츠앱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는 최우선이며, 안전하게 유지할 것”임을 발표했다.
- 이는 2021년 왓츠앱의 데이터 공유 확대 서비스 약관 변경 당시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후의 또 다른 변화이다. 왓츠앱은 이번 변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 “광고를 위한 데이터 공유는 선택사항”이라고 밝히며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.

NYT 기사

CNNBusiness: Samsung's big plan to compete with the Apple Watch:

keeping you healthy as you age

삼성, “고령층 건강 관리”...애플에 도전

- 2025년에 들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, 많은 고령층이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며 생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. 삼성은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추세를 겨냥하고 있다.
- 삼성은 “건강을 가정으로 도입하는 것”이 차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, 단순한 건강 추적을 넘어 사용자가 질병을 겪기 전에 올바른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.
- 이번에 확대된 서비스는 이달부터 삼성 갤럭시 워치5 이상 모델에서 제공되는데, 일부 고급 기능은 최신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CNNBusiness 기사

CNBC: Starbucks moves to the next phase in its turnaround: Winning

over employees

스타벅스, 기업 변모 새로운 전략...직원 신뢰 회복에 집중

- 스타벅스가 기업을 변모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로 ‘직원 중심’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.
- 스타벅스 CEO Brian Niccol은 취임 첫 주 리더십 행사에서 부진한 매출을 회복하고자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전략 개편, 카페 인력 확충, 모바일 앱 문제 해결, 매장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.
- 동시에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장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.
- 스타벅스는 카페 내 좌석을 없애는 등 과거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불만을 샀던 기존의 결정들을 일부 철회하고 있다.
- 또한, 미국 내 매장 수를 10,000개 추가하고 내부 승진을 60%에서 90%까지 높이겠다 밝혔다. 이에 따라 1,000명의 지역 관리자, 100명의 지역 디렉터, 14명의 지역 부사장을 새로 임명할 계획이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Amex Plans 'Largest Investment Ever' in Platinum Credit Card

아멕스, 플래티넘 신용카드에 '역대 최대 투자' 한다

- 아멕스(아메리칸 익스프레스)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플래티넘 신용카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공개하며, 이를 "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"라고 밝혔다.
- 아멕스 소비자 서비스 그룹 사장 Howard Grosfield은 "여행, 식사, 라이프 스타일 혜택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"임을 발표했다.
- 2021년 아멕스의 플래티넘 카드 연회비가 695달러로 인상되고 연간 200달러의 호텔 크레딧이 추가된 이후, JP모건의 사파이어 리저브 카드와 캐피털 원의 벤처 X 리워드 카드 등과 같은 프리미엄 신용카드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졌다.
- 한편, 분석가들은 "이번 업그레이드는 신규 카드 취득과 동시에 아멕스의 매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"라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'US 스타일 황금주' 내용 보니..."본사이전·사명변경 등 거부 가능"

美상무장관 "황금주는 영구적"...日언론 "일본제철 투자 일정 준수까지 확인"

이시바 "미일 경제관계 강화"...미일 정상회담, 캐나다서 16일 개최 조율

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정부에 부여하기로 한 '황금주'에 본사 이전, 사명 변경, 투자 지체 등과 관련된 거부권이 담겼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.

러트닉 장관은 14일(현지시간) 엑스(X·옛 트위터)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이 US스틸 황금주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